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2. 15.(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재홍 부위원장 (1인)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2월 8일에 있었던 제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 중 1건은 의결이 보류되었고 2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조정에 관한 건 (2017-07-04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금일 안건 논의와 관련해서 관계자의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주문은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KBS·MBC·SBS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운용개시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운용개시일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6년 9월 30일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국가표준이 결정되었습니다. ‘16년 10월 17일부터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16년 11월 11일 신규허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16년 12월 23일 지상파 UHD 방송 일정 연기를 지상파3사가 요청하였고, 이후에 지상파 UHD 방송 일정연기 요청 사유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17년 1월 31일 지상파 UHD 방송 일정 관련 방통위·지상파 간담회가 있었고, ‘17년 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지상파 UHD 준비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KBS·MBC·SBS의 지상파 UHD 방송 일정 연기 요청 사유입니다. 첫째, 미국 ATSC 3.0 방송표준 중 SFN 스케줄링 등 주요기술에 관한 세부표준 제정이 지연되고 있고, 둘째 국내외 UHD 장비업체가 완제품 출시를 미루어 시제품 수준의 장비로 송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송신정합이 불안정하여 방송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KBS의 경우 공사 특성상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이후에 장비발주가 가능하여, 타 방송사에 비해 UHD 장비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수신 시나리오 31개 중 일부 시나리오만 검증된 상태이며, 시험방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고 가전사의 양방향서비스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방송사의 송신장비 구축현황입니다. MBC·SBS의 수도권 송신장비는 상당 부분 구축되었으며, '17년 2월 말까지 송신장비 정합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KBS는 늦게 발주가 되었고 송신장비 납품이 지연되는 등 장비구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상파방송사 UHD 설비구축 현황 <표>를 보시면 KBS의 경우에는 송신소 설치가 '17년 4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부의 검토의견은 '17년 2월 현재 장비 구매가 늦어지고 있는 KBS를 제외하고 MBC·SBS의 UHD 장비는 상당 부분 구축되었고, 발주 납품 지연 이외에는 '17년 2월 말 방송 송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비된 방송사부터 UHD 방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가 부족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방통위 검토결과입니다. 연기 필요성과 관련하여 미래부 의견을 고려할 때, 방송장비를 구축한 MBC·SBS는 지상파 UHD 2월 송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방송사가 주장하는 7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조정실 등 송출 이외의 과정과 전반적인 장비연동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험방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비된 방송사부터 개별적으로 방송을 개시할 수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개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심사 과정에서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검토를 마쳤지만 방송사 동시송출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해야 하는 기술적 사항이 있다는 지상파3사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초기에 국민적 관심을 조성하려면 지상파3사가 공동개국하여 동시에 방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상파3사가 UHD 방송을 개별 도입할 경우 가전사의 셋톱박스의 보급시점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기 시점은 KBS의 UHD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상파3사의 공동개국일은 KBS까지 UHD 본방송이 준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방송사에도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미래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KBS의 시험방송 기간은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러한 여러 고려사항을 볼 때 가장 준비가 늦은 KBS의 장비가 도입되는 시점(4월 말)부터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여 '17년 5월 31일에 지상파3사가 수도권 지역 UHD 방송국을 공동개국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7년 2월 28일부터 지상파3사 공동으로 본 방송에 준하는 UHD 시험방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KBS는 대여한 장비를 임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UHD 도입의 장애요인을 점검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파 UHD 방송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방통위가 자체 운영하던 'UHD 도입상황 점검 TF'를 민·관합동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UHD 준비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그 의결한 내용에 따라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관련된 승인문서를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지상파 UHD 준비상황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해진 날짜부터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비구축이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여기 보고에 보면 국내외 UHD 장비업체가 완제품 출시를 미루고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임시장비로 송신망을 구축·운영해서 일부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장비업체가 완제품 출시를 미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ATSC 3.0 표준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ATSC 3.0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업체 입장에서는 국내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제조업체가 해외업체들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국산업체도 있고 해외업체들도 있는데 주로 지상파 쪽에서는 해외업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이는데….

○ 최성준 위원장

- 그 대목에서 정확한 비율은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방송3사가 구축한 장비 중에 국내 UHD 장비업체가 제조한 제품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많은 장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국산제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많이 늦어지는 것들이 송신기나 이런 것들은 외산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국내나 됐건 국외가 됐건 장비출시를 미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시장이 아직 작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못 내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이런 장비를 들여와서 방송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장비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방송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장비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계속 그 부분을, 오류가 발생하면 기술진이 와서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가전사 이야기인데 지상파3사가 동시에 개국하지 않으면 셋톱박스를 보급하기 어렵다는 가전사들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동시 개국하지 않고 준비되는 방송사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개국한다면 셋톱박스 보급이 왜 어렵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TV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마트TV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고, 지금 웬만한 송수신 정합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마이너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송3사가 방송을 다 중간에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TV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있는데 TV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쉽습니다. 다만,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후에 하는 방송사에 약간 다른 부분이 발생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면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기사가 가서 직접 다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사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었을 때 방송사가 다 나온 다음에 셋톱박스를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3사마다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서 잡아내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는 것이 비용 절감 문제 등….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아직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류를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추가 기능이나 서비스를 더 추가시킬 때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로서 TV는 하드웨어는 거의 다 나왔고 소프트웨어만 고정하면 충분히 UHD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신규 서비스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유럽식 방식으로 판매가 된 UHD TV에 대한 컨버터 셋톱박스의 문제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새로 출시하는 것들은 당연히 미국식 표준을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종전 유럽식 표준으로 제조되어서 지금 유료방송 등을 통해서 UHD를 보고 있는 TV수상기의 경우에는 컨버터를 셋톱박스 형태로 보급해서 지금 미국식 표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방송사마다 일정이 다 다를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것을 맞추기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가서 한 번에 컨버터를 장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전사들의 의견이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가전사가 미리 판매를 해서 UHD TV를 볼 수 있다고 선전해서 팔았던 소위 수상기가 200만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전사들이 그것을 판매할 때 곧 개국이 되는 UHD TV를 볼 수 있다고 판 것 아닙니까? 고액을 들여서 소비자들이 구매했는데 표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 본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표준이기 때문에 컨버터, 소위 셋톱박스를 따로 설치해야 UHD를 볼 수 있다, 지금 판매된 것은 유럽식 표준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난해까지 나온 모델들은 다 유럽식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소비자들은 어쨌든 볼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표준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못 보고 셋톱박스가 따로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쨌든 그것이 또 추가 비용이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전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매할 때는 볼 수 있다고 해서 판매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전사에서 비용부담을 얼마한다든가 해서 소비자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도의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 부분은 작년 상반기에 표준제정될 때 표준제정 이후에는 제조사들은 미국식 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TV가 유럽식 방식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 TV는 지상파 UHD 본방송과 관련이 없다'라는 고지를 하면서 팔고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그 이후에 미래부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해 봤지만 가전사 쪽에서는 과거에도 지나간 TV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없고 또 이것이 해외까지 번졌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부담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담하기 어렵다, 다만, 출시에 맞춰서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셋톱박스를 보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듣기로는 '이 수상기를 사도 미국식으로 표준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따로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라고 100만대쯤 팔리고 난 뒤에 고지가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마지막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 UHD 방송을 유럽식 표준으로 할지, 아니면 미국식 표준으로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작년 9월 30일이고, 그다음에 작년 여름부터 유럽식 표준보다는 ATSC 3.0이라는 미국식 표준이 쌍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훌륭한 기술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채택되는 것을 쭉 검토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수년간 판매된 UHD TV의 경우에 사실 그 당시에는 유럽식 표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조해서 판매한 가전사로서는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맞게 한 것이고, 거기에 어떤 선택의 문제라든지 또는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다만, 작년에 미국식 표준이라는 쌍방향성을 가진 훨씬 기능이 뛰어난 새로운 표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표준의 변경에 따라서 종전 TV는 컨버터를 이용해서 새로이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만, 문제가 되는 기간은 작년 하반기에 주로 판매되는 UHD TV였는데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저희와 미래부가 가전사에게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내용을 충실히 알리고 TV를 판매하도록 지도해 왔고 가전사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실

제로 판매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난 11월 여기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3사를 대표해서 임원 분들이 오셨지만 이분들과 논쟁까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제 입장에서 허가장을 교부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방송 개시일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5년 국회, 우리 위원회, 미래부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UHD 방송용 주파수 배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2015년 12월 29일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지상파3사의 UHD 방송을 허가해서 조속한 본방송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지상파3사가 일정 연기 사유로 든 주요사항은 이미 지난 11월 허가 심사 시에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의견청취 당시 방송3사 사장님들과 UHD 담당 간부들은 “그럼에도 일정에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ATSC 3.0 표준화 지원에 따른 장비도입 지침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사업자들은 의견청취시 “대안을 가지고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지연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 예방 또는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방송사들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당시 의견청취 속기록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송중계망 구축이나 스케줄러 같은 핵심 장비의 개발 문제, 장비나 인터페이스 이 문제를 심사위원이 거론했습니다. 어디 방송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사 기술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 개발팀이 있고 해외에서도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비교 테스트를 해서 안정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아직 분명하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기술국장이 답변합니다.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방송사의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계망 구축이나 핵심 장비의 발주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해당 방송사의 디지털 기술국장의 답변입니다. “발주를 내는 과정에

서 핵심장비는 스케줄러 부분이 아직 표준화가 안 돼서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우선 발주사의 규격으로 하고 나중에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FN망 같은 경우는 간단한 테스트만 마치면 바로 SFN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용 곳곳에서 지금 현재 방송3사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또 운영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심사위원들이 다 지적했지요? 과장님!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정확한 문구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대체로 지상파3사의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기술 담당 임원, 간부들은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느 한 방송사라도 2월에 본방송이 어렵다고 한 방송사가 있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없었지요? 제가 이렇게 속기록까지 읽어드리는 것은 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록을 확인하고 또 다시 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우리 위원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허가증을 받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방송3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논의해서 일정 연기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지만 뒤에 보면 민·관합동으로 점검단도 구성하지 않습니까? 일정 연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되고 추후에 민·관합동 점검반이 꾸려진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인 일정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장비출시 그다음에 그 출시된 장비를 통해 서로 정합성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 또 현재도 몇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KBS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공사의 특성상 2016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의결이 있는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장비발주를 시작해서 발주 자체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비해 몇 달 늦어졌고, 더구나 또 그렇게 발주한 장비업체가 특히 가장 핵심적인 송신망 장비와 관련해서는 2월 말 납품을 받기로 됐던 부분이 4월 중순 또는 4월 말로 납품기일이 늦어지게 되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긴 한데, 설사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방송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2월 말 개국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부분이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더 확실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서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은 별로 논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한마디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상파 UHD 세계 최초 도입’, 세계 최초가 저는 그냥 거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비문제, 텔레비전 문제, 표준 문제, 셋톱박스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고 방송을 시작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세계 최초라는 그런 의지나 뜻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비 중에 국내업체들 장비가 아직 시제품 수준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핏 나왔는데 그것은 뻔합니다. 몇 년 더 기다리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짝 가격의 제품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입증된, 소비자들의 반응도 다 확인된 ..., 그런데 통신이든 방송이든 새로운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뭔가 세계 최초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리딩 컨트리(Leading Country)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된 그런 문제들,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도 잘하면 더 많은 어드밴티지(Advantage)와 베니핏(Benefit)을 우리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상파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또 미래부에서도 검토했는데 저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과거 어떤 기술도 어떤 나라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미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이런 것이 아직 안 됐고 이것이 안정화가 안 됐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IT 쪽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전략입니다. 결국 시장에 나갈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을 정할 때는 비단 기술의 문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의 문제이고 서바이벌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이것은

또 뭐가 안 되는 것이고 저래서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위원님들도 사무처에서도 그동안 지상파들과 수많은 토론, 고민, 의견교환을 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콘셉트, 우리의 의지, 우리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처음부터 왜 이런 것을 생각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자꾸 '뭐가 어려워서', '뭐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한 방향으로 지금 지상파 UHD 준비상황 점검단을 보다 확대하고 그다음에 민·관합동의 기술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방송3사 관계자들이 의견진술하려고 나와 계시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KBS·MBC·SBS 의견진술인 입장)

김대희 KBS 전략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김대희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성근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김성근 (주)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신경렬 SBS 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 신경렬 (주)SBS 정책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앞에서 사무처에서 보고한 것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지상파방송 3사가 연기 요청한 그 시기보다 앞당겨서 5월 31일에는 지상파 UHD 본방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3사 같이 5월 31일에는 지상파 본방송을 공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지상파3사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KBS에서 부터

MBC·SBS 순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KBS 전략기획실장 김대희입니다. 5월 31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짜를 지정한다면 개국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물론 개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2월 말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저희들이 송신기 납품이 안 됐습니다만 납품하기로 한 업체가 스스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니까 이미 검증된 출력이 낮은 송신기를 저희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작을 다 하고 설치한 다음에 국민과 약속한 2월 말에는 UHD 전파를 저희들이 쏘겠습니다. 1단계 방송으로 해서 쏠 생각입니다. 현재 스케줄대로는 송신기 납품업체가 4월 중·하순까지는 납품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해 오고 있으니까 납품을 받아서 설치가 되는 대로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성근 MBC 방송인프라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김성근 (주)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

-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입니다. 작년 9월 말에 UHD 표준이 제정된 이후로 저희 방송사는 국책연구소와 TTA 그리고 가전사 여러 장비업체들과 UHD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송신기를 제외한 인코더(Encoder)나 믹서(Multiplexer, Muxer), 디믹서(Edmultiplexer, DeMuxer), 자막기 등 대부분의 장비를 저희 방송사는 국산으로 채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산 방송장비업체들과 시스템을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신청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개별 장비 차원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정합상의 여러 문제들, 여러 장비들을 통합해서 완성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신청할 때 약속한 2월 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본방송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내업체들과 현재 여러 가지 경험한 어려움이 저는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추후에 다른 나라에서 아마 UHD 방송을 할 때 우리 국내업체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가전사와 연구기관들 그리고 장비업체들과 방송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5월 말 본방송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이 연구기관들 가전사와 장비업체들이 저희 방송사 힘만으로 견인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점검단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신경렬 SBS 정책실장님!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SBS 정책실장 신경렬입니다. UHD 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험방송이지만 UHD 주파수를 쏘고 있고, 단말기를 구입한 시청자들은 지금도 부분적입니다만 UHD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와 있습니다. 다만, 시험방송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 그다음에 수신자들의 불편한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얼마만큼 감당하면서 돌아오는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방송하느냐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월 말 방송이 쉽지가 않고, 우리가 좀 더 테스트 기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방통위가 어떻게 그 시점을 결정해 주든지 간에 저희는 그 시점에 맞춰서는 방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방통위에서도 그렇고 UHD 방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RF와 IP가 결합된 차세대 방송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런 기술적 어려움을 줄여갈 것이고 시청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교화된 서비스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송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역시 가전사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장비제조업체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진전되어서 예정된 시점에 국민들에게 'UHD 방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화질이 좋아지는 방송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서비스가 실현이 되는구나. 구현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방통위 쪽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조정과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SBS 신경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상파 UHD 관련해서 여러 인터뷰나 또는 기고를 함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이 단순히 HD 방송에 비해서 화질이 4배 좋아지고 음향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IP(All-IP) 기반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바뀌면서 지상파방송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쌍방향을 기초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TV수상기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또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장면만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를 완성하는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방송 시작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3사가 다 같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차근차근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금 나오신 분이 전략기획실장 또 방송인프라본부장, 정책실장이시지만 지상파방송 3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바로 지상파3사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2월 28일부터는 본방송에 준하는 시험방송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5월 31일부터는 정상적인 본방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3사 다 그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분명하게 KBS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김대희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위원장님, 지금 5월 31일로 정해진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대희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중·하순까지는 송신기 설치를 다 하고 그 전에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5월 31일로 기한이 정해진다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청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경우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시청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합동점검반이 구성되니까 그 점검반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로드맵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합동점검반에 적극 참여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MBC는 어떻습니까?

○ 김성근 ㈜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

- 2월 28일부터 시험방송 그리고 5월 31일부터 본방송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SBS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신경렬 ㈜SBS 정책실장

- 앞서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술의 완벽성을 기할 때까지는 하세월인 것 같고, 정해진 기한 내에 기술적 에러를 최대한 잡고 그다음에 시청자에게 편익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주어진 시점에 반드시 그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자주 요구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아까 고삼석 위원이 쪽 경과를 말씀하셨듯이 지상파 UHD 방송 허가 심사 과정에서 2월 말에 정상적인 본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확실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점검한 사정,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장비도입 과정을 살펴본 결과,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방송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끊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우려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KBS의 경우에는 장비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동시에 송신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5월 31일로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석 달 반 후의 일이지만 또 그 무렵에 가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구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3사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방송3사 전부다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고개 끄덕이는' 의견진술인 있음)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했는데 물론 전부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이어서 이것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신속한 해결, 좀 더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상황 점검단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장을 한 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려야지요. 모두가 다 2월 말에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가 2월 말에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월 말 본방송이 가능하겠으나, 그런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방송사들이 솔직하게 준비된 상황을 위원회에 알리고 같이 고민했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회나 공영방송사를 포함해서 지상파3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사실상 한 차례 깨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3사 공통으로 허가장 받고 한 달 뒤에 일정 연기 신청하셨지요? 그러면 한 달 뒤 상황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제가 그 예전의 상황을 복기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한번 연기한 UHD 본방송 일정이 다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관합동으로 점점 TFT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텐데 정확한 자료나 정보를 방송3사에서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평가와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송기술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송사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월 31일 지상파 UHD 본방송이 차질 없이 론칭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주)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

-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사도 위원님, 가급적이면 UHD 방송을 여건만 되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도 UHD를 통해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방송사도 가급적 UHD 방송이 빨리 되어야 일정 부분 저희 방송사의 이해관계도 일치하니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만하십시오. 한 달 뒤 예측도 못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입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짤막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또 방송3사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기를 부득이 하게 됐다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속은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셨으니까 엄정한 책임 의견을 가지고 오류를 잘 잡아나가서 5월 31일부터는 온 국민이 정말 글로벌 방송시장에 가장 선진 UHD 방송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꼭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 쫓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KBS 같은 경우 지금 장비 도입이 제조사 사정으로 두 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되어서 4월 말에나 설치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출력이 낮은 장비라도 임시로 들여와서 3사가 2월 28일 이달 말쯤에는 동시에 쏘아 본다는 것이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그 적합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연 출력이 낮은 장비를 가지고 일단 해 보는데 만약에 제대로 된 장비가 4월 말에 들어와서 쏘아볼 때 그때 3사 간의 전파 혼선이나 전파 간섭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KBS가 그렇게 되면 5월 31일까지 사실상 본 장비를 가지고 본격 실질적인 시험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달입니다. 그래서 KBS가 특별히 각오를 단단하게 갖고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화섭 KBS UHD 추진단장님, 기술자 측면에서, 엔지니어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 잠깐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섭 한국방송공사 UHD 추진단장

- 저희들도 장비가 초기 장비보다는 좀 더 개발되어서 잘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말씀대로 지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게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3사 공조해서 충분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UHD 방송이 저희들도 더욱 부흥시키고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수신환경 부분까지도 같이 짚어져서 같이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KBS 기술진이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한 달, 본격적인 실질 시험방송은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11월 11일 UHD 방송허가증을 받았는데 바로 또 한 달 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연기 신청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달 안으로 UHD 본

방송 시작이라는 약속이 어겨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났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허가를 신청할 때 이런 저런 기술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추고 또는 숨기고 ‘다시 본방송이 임박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연기신청해서 또 가지 뭐’ 안이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방송이라는 것이 장치산업입니다. 개별 장비마다 전부 완벽하게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고 다 골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다 한꺼번에 설치해서 작동시켜 봤을 때 여기저기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방송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서 신청을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말로 SBS는 가장 준비가 빨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도 거의 같이 준비해서, KBS는 장비도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지금 3개월 정도 시험방송을 하니까 정말 이번에는 다시는 연기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또 새로운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같이 봐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제 정말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밤을 새우더라도 지상파3사의 명예를 걸고라도 세계 최초 최첨단 방송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통위 3기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방통위에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지상파 UHD 문제인데 2014년, 2015년은 700MHz에서 UHD 주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엄청난 논의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상파들은 UHD를 그때 시점에서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지금 당장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파 UHD가 당장 하면 큰일 나는 그런 이슈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상파 UHD를 굳이 이동통신에 있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방송에 있어서 아날로그를 1세대라고 보고 UHD를 4세대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금년 2월 말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4세대 UHD 방송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굳이 전문가들이 3.5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버전으로 따지면 3.1부터 3.9까지 과정을 거쳐서 4.0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술은 혁신으로 일어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진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처음부터 엔드 유저(end user)인 국민들에게 4.0을 보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도 않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파가 지상파 UHD 시장에 있어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급자이고, 또 텔레비전이나 셋톱박스나 장비 만드는 기업에게는 수요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자가 다른 관계된 제조업체, 장비업체들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최종 수요자에게는 공급자가 또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좀 더 쉬운 것은 본인이 수요자만 하면 되는, 시장에 다 나온 제품 값싸고 성능 좋은 것을 쓰면 이것이 제일 편한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을 썼다는 것이지요. 퍼스트 팔로워(First follower) 내지는 캐치업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지상파가 장비, 단말기 시장에 있어서는 이 시장을 끌고 가야 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꾸 누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고 이것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 감독 내지는 CP로서 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기술책임자도 오셨고, 정책파트의 책임자도 오셨는데 이 UHD 문제는 저는 기술문제로만 자꾸 보면 추동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영의 문제이고 전략의 문제이고 지상파의 미래의 문제이고 제작의 문제이고 편성의 문제이고 경영의 문제이고, 토털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최고 경영층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으면 풀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 말씀은 조정된 일정으로 가더라도 저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주 잘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또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단이라는 것이 꼭 점검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고민을 서로 공유하고 솔루션을 찾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하고 또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고민하고 관련 제조업체들은 제조업체대로 고민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따로 따로 했다면 이제는 다 모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상파가 가장 주도적으로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통위가 그동안 미래부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하면서 오늘 일정을 조정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까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지상파 입장에서 정말 이것은 내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3사에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견진술인 있음)

○ 신경렬 (주)SBS 정책실장

-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의견들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까지 감안하면서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 저희 상임위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들에 대한 신뢰 때문에 2월 말에 본방송을 개시하는 것을 5월 말로 본방송 개시시기를 연기함에 있어서 지상파3사가 확고한 의지를 표현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으로 확인문서라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상파3사가 지금 쪽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여기에 나오신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다시는 또 이런 연기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런 뜻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지상파3사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요?

○ 김성근 (주)문화방송 방송인프라본부장

- 예.

○ 신경렬 (주)SBS 정책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KBS는 대답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김대희 한국방송공사 전략기획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믿고 그다음에 이기주 위원님,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서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고 챙기면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KBS·MBC·SBS 의견진술인 퇴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이것을 다 종합해서 아까 생략했던 의결주문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의결주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KBS·MBC·SBS 관악산 송신소)의 운용개시일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표>에는 첫 번째 행에 대상 방송국, KBS·MBC·SBS UHDTV 방송국(관악산 송신소)입니다. 두 번째 행은 운용개시일은 '17년 5월 31일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의결주문 보고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다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또 방송사는 지상파 UHD 방송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애를 써 왔고, 그다음에 올해 2월부터 수도권 지역 UHD 본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허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더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방송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상파방송사들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의결주문을 보고하신 것과 같이 본방송 일정을 5월 말로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다 안정적인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

하게 된 것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상파방송사들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지금 방송3사 책임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부터는 본방송에 준하는 시험방송을 3사가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시험방송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일단 UHD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은 그런 면에서 받은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방송은 본방송에 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본방송과 거의 차이가 없이 그렇게 편성될 예정이지만 다만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방송 도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혹시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테스트를 위해서는 UHD 채널과 프로그램 편성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KBS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정상적인 출력을 가진 송신기가 아니라 출력이 낮은 임시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수도권 전역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음을 시청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UHD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희들의 입장이고, 지상파3사로서는 아까도 계속 다짐했듯이 5월 말에 본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보고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준비상황 점검단이 구성되어서 거의 매일 상황을 점검하듯이 해서 5월 말에 본방송이 시작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신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조사들이 2월 말부터 3월 10일 사이에 미국식 표준인 ATSC 3.0 표준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방송이 이루어지고 본방송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신기를 구입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무렵 인근 해서 기존 유럽식 표준을 채택한 UHDTV 수상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셋톱박스도 순차적으로 공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식 기존의 UHD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록 약간의 비용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컨버터 형식 셋톱박스를 구매하시면 2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시험방송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UHD 방송의 도입은 꼭 세계 최초 운운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에서 방송이 UHD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도권, 그다음에 광역시 및 평창권을 순조롭게 잘 추진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및 세계 유명선수들이 뛰는 그런 경기장면이 UHD로 방송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지상파방송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부 장비들은 국산장비들을 지상파3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상파3사에서 이 장비들을 통한 본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방송장비들이 앞으로 전 세계 UHD 방송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장비산업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일부러 의결되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준비단 구성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조정 승인 문서 교부하는 것이나 운용개시 하는 것은 날짜가 딱 그날로 끝나는 것이지만 점검단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는 2월 23일 한다고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한다고 이야기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기관이나 사람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오로지 기술파트만 하기보다 봐서 제작 쪽이나 경영 쪽도 필요하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UHD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무협의회와 이 점검단이 또 중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점검단에서는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서로 만나서 의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상시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상당 기간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로드맵에 따르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상파 UHD, 실무 책임자급들이겠지요, 정말 전문가들이 끌고 간다는 그런 콘셉트로 잘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외국 출장 중이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지금 논의된 안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셨음을 말씀드립니다.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주)G1 (2017-07-04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G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2월 2일에 에스지건설(주)가 신청한 (주)G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다액출자자가 기존의 29.68%의 지분을 가진 (주)대양에서 지분을 28% 가진 에스지건설(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상파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과 방송사 경영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안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최다액출자자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항목은 <표>를 보시면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승인 여부 결정은 심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시청자의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승인 여부, 승인조건 등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17년 3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위원회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재)불교방송 제주FM (2017-07-04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불교방송의 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16년 9월 30일 불교방송에서 방통위에 제주FM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7년 1월 26일 미래부에서 기술심사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17년 2월 3일 방통위는 불교방송에 미비사항 보정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정자료를 불교방송이 2월 8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내용은 제주시 일원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FM방송국을 신규허가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신규허가 심사의 공정성·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신규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라디오 신규허가 심사임을 고려하여 방송편성 및 지역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

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요청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8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위촉 기준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하고, 결격사유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한 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법음 전파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해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허가여부 결정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 <표>에서는 심사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2월 중에 청취자 의견 접수, 그리고 3월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드렸던 'CBS 대구음악 FM' 신규허가 신청 건과 함께 심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에 3월 중으로 심사결과를 의결하고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로 제주FM이 서울 불교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수중계 하는 것이지요? 91%가 수중계되고 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편성계획에 90% 정도는 수중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로컬 자체제작 비중이 8.7%인데 로컬 편성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담깁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음악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제작하는 불교 관련 프로그램이 실리게 되고, 일부 생활정보라든지 간단한 지역소식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 보면 불교 분야 79% 괄호 속에 보도 11%로 되어 있는데 보도는 로컬뉴스를 이야기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로컬뉴스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아마 서울에서 나오는 중앙뉴스들이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포함시켜서 11%라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에 인력계획에 8명 인력으로 일단 본사에서 먼저 인력을 파견해서 시작하고 3년 이내에 7명의 제주인력을 뽑는다는 이야기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주로 방송기술 엔지니어 쪽 분들이 필수요원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나운서라든지 방송 필수인력이 들어갈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개국 초기에는 로컬편성이 적기 때문에 기술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점차 로컬편성을 늘려 나가면 PD나 아나운서, 제작인력들도 아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꼭 로컬 인력을 많이 채용하게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인력난들, 우리가 로컬방송을 허가해 주는 의미도 그런 데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로컬 지역 내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계획을 잘 짜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

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 안전도 지나갔는데 여기 4페이지 심사위원 구성에 '방통위 사무조직(1)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조직'이 아니고 '방통위 사무처'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종기 사무처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통위 설치법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17조에 사무조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아마 앞으로 다른 사안 때문에 개정할 때 사무처로 해서, 같은 설치법 안에 심의위원회 사무처와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위원 중 방통위 사무처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종기 사무처장

-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지금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표현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고삼석 위원님이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때문에 나가시면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